불소수지도료 수요위축“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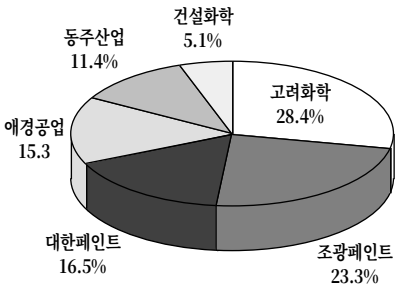
건축경기 둔화로 자연건조형 부진 … 95년 23.8% 신장 1300톤

국내 불소수지도료시장이 95년 큰폭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건조형에서 자동차용과 분체용으로의 수요확대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고부가도료의 특징인 고기능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불소수지도료 시장점유현황(1995)

(단위: 억원, %)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불소수지도료 수요는 1300톤, 180억원으로 94년 1050톤, 144억원에 비해 23.8%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일반시멘트계열의 PC판넬에 주로 사용되는 자연건조형은 전체의 10.0%인 130톤에 그쳤으며, 1170톤은 대부분이 알루미늄 판넬과 창호에 사용되는 가열건조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요증가 추세는 96년 들어서면서 건축경기의 급격한 둔화에다 자연건조형에서의 부진한 신장률로 크게 반전될 것이 확실시되는 등 시장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96년 수요증가율이 5%내외의 자연증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시장의 침체가 기존 저가 범용도료인 아크릴, 우레탄, 에폭시도료 대체를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5년 하반기이후 불어닥친 가공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사태는 이같은 시장예측을 가능케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가열건조형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던 건설화학이 95년6월 주거래선인 세일공업과 동아산업의 연이은 부도로 18%이상의 공급물량 감축이 불가피하는 등 전체외형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96년들어 여타의 도장기업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95년실적 기준 기업별 시장점유현황을 보면, 고려화학이 50억원으로 전체 180억원 가운데 28.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조광페인트가 41억원 23.3%, 대한페인트 29억원 16.5%, 애경공업 27억원 15.3%, 동주산업 20억원 11.4%, 건설화학 9억원 5.1% 순으로 나타났다.

불소수지도료는 도장방식으로 스프레이방식과 롤라코팅방식으로 나뉘며, 스프레이가 전체의 55.5%, PCM도료에 주로 사용되는 롤라코팅이 45.5%를 보이고 있다.

롤라코팅을 제외한 스프레이방식만 보면 조광페인트 28.0%, 고려화학 25.0%, 건설화학 15.0, 동주산업 및 애경공업이 각각 14.0%, 대한페인트 4.0%로 나타나 PCM도료가 주력인 대한페인트의 상대적인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소수지도료 가격은 96년2월 현재 자연건조형이 Kg당 35만~45만원, 가열건조형이 20만~23만원선으로 95년동기대비 1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승은 자연건조형에 들어가는 불소수지 Copolymer(공급원 Asahi)가 Kg당 2만2000원, 가열건조형에 사용되는 일반성형용(공급원 Atochem, Ausimont)이 1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5%이상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95년말 미국 Morton과 기술제휴로 국내 스프레이업계에 완제품을 수입판매(자체수요 포함)하고 있는 벽산은 불소수지도료 생산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나 수요 불황으로 적극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6/3/18>